



실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홍보국도 어떤 일을 계획할까 생각하다, 주보의 많은 부수와 신자들의 높은 열독률에 착안해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을 기획하였습니다. 당시 홍보국장이던 저는 주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신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울주보 2000호 발행을 기념하여,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실천할 새 코너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을 기획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매달 한 번씩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교우를 소개하고, 교우들의 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삶이 각박해져 나눔이 줄어드는 요즘, 서울주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이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실제 우리 직원이 어려운 분을 찾아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보에 글을 써서 후원을 부탁드렸지요. 이 기획은 ‘첫 번째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3월 1일 자 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웃”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 2월 4일 오후, (중략) 언제 지어졌는지 지붕조차 온전치 않아 천막을 두른 허술한 집에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매님과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석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까지 아파졌습니다. 자매님께 괜찮으신지 여쭙보니 “난 종일 있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문 좀 열어놔야겠네.” 하십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아, 10년이 지난 석유 난로와 동사무소에서 기증받은 작은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석유통들이 즐비하여 행여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LPG 가스통에 가스레인지와 화장실 온수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이 온수기조차 고장이 나서 현재는 따뜻한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목욕을 할 수가 없어서 목욕탕

에 갔지만, 목욕탕 주인은 몸이 성치 않은 자매님이 행여 다칠세라 손사래를 치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략) 중학생이던 아들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정신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아들의 증세로 가족은 외해되고,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은 두 딸은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계속된 약물치료로 현재 아들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자매님이 뇌병변장애를 얻게 되면서 거동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국가에서 지원하는 60여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한 달 석유값만도 20만 원. 거기에 병원비, 전기세, 식비 등 생활비를 쓰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상 위험한 집이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 이사는 꿈도 못꿉니다. 그렇지만 자매님은 분당 공동체의 기도와 가정방문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며 굳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을 후원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드리자 오히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라고 말하는 자매님을 보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잠시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온전치 못한 아들 걱정에도 쉽게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는 자매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른 언론 기사와는 달리 하루종일 어려운 분의 사정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주고 충분히 파악을 하고 쓴 글이라 아주 현장 중계처럼 생생합니다. 이 일을 담당하고 실제 기사로 썼던 홍보국 직원은 그 후에도 종횡무진 전국을 누볐고, 필리핀의 오지에도 가는 열성을 보였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금이 들어오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보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적을 체험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서울주보의 진화가 어디까지 일까 궁금해집니다.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은 2017년 <사랑의 손길>로 코너명을 변경하여, 2021년에도 매월 첫째주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